

# 설 앞두고 주문 폭주, 매하구 스마트 농장 '풀가동'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명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하구시 우심정진 화미식장 스마트 농장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매하구시 우심정진의 주요 투자 대상인 이 스마트 농장은 음력설 기간에도 생산과 작업을 지속하며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스마트 양계장 내부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자동 설비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고 일꾼들은 질서 있게 출하전 최종 점검을 진행중이다. 화미사육장 책임자 두금휘는 “음력설이 가까워질수록 시장 수요가 더욱 활발해진다.”며 현재까지 농장에서는 총 두차례에 걸쳐 백우계(흰 깃털 닭) 120만마리를 성공적으로 출하하여 120만원 이상의 리윤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사육 속도를 유지한다면 올해 목표인 년간 400만마리 출

하량은 무난히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3만 5,000평방미터의 사육 기지에는 10여개의 표준화된 계사가 일렬로 배치되어있다. 지능형 환경 제어 시스템이 백우계의 생장 주기에 따

라 자동으로 환기 및 조명 수치를 조절하며 프로젝트의 지능화, 표준화, 생태화를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기술원 손승호는 “표준화된 사육 방식으로 닭고기 품질이 안정되었어



/ 김림일보

## 석문진, 특색재배산업으로 향촌 새 화폭 그린다

최근년간 안도현 석문진은 천혜의 자원에 립크래프트 하우스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팔기, 상황버섯, 산야채 등 특색재배 분야에 집중해 하우스 경제로 수입을 늘리는 등 토지자원과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향촌 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내고 있다.

과일 향기 가득한 특색재배산업은 달콤한 수익 증대의 길을 밝혀주었다. 팔기와 포도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비닐하우스 안은 과일 향기로 차넘친다. 수확된 과일은 시장에서 잘 팔려 농가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었다.

포도 수확이 끝난 후 농가들은 또 유류 포도하우스 자원을 활용해 하

우스 닭사육 모식을 발전시키면서 자원의 재활용을 실현했다. 현재까지 석문진은 동심재집원, 석문철도 구밭기원 등 2개의 팔기재배기지와 유수천촌포도재집원 1개를 갖고 있는데 해마다 1,500 키로그램의 포도, 4,000 키로그램의 팔기를 수확하고 1,000 마리의 닭을 사육하여 일당 200여개의 닭알을 생산할 수 있다. 석문진은 ‘재배 + 사육’ 립체 발전 모식을 통해 수입 증가 경로를 확장하고 과일재배산업에 지속적으로 혜력을 불어넣어 농가들이 치부의 길에 들어서도록 노력했다.

석문진 북산촌 상황재배기지의 상

황버섯은 높은 약용 및 경제 가치에 힘입어 특색재배의 ‘주목받는 인기

대상’으로 떠올랐다. 석문진은 적합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 의해 정확하게 상황버섯 특색재배를 계획하고 하우스 상황버섯 양식 산업을 발전시켰다. 지금까지 25채의 철골하우스를 건설하고 10만그루의 상황버섯 단을 양식, 배치했다. 대상건설이 완공된 후 상황버섯단의 재배 규모는 25만그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상은 현지 농민 200여명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인당 수입을 4,000여원 증가시켰으며 러계로 80여만원의 소득을 가져다주어 경제적 수익과 생태적 효익의 이중 혜택을 실현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특색농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 생태적 우세에 기반하여 석문진은 산야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록색 산야채를 재배, 건강한 록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석문진야채과일원의 년간 비닐하우스 산야채 생산량은 5,000근, 과일 생산량은 2만여근이며 순수입은 30여 만원에 달한다. 산야채재배산업은 유류 토지를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 수입 증대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생태 우세를 산업 발전 우세로 전환시켜 향촌산업의 디파워화 발전에 조력했다.

/ 안도별부

##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새해 축복을 전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행복 평안과 위대한 조국의 번영창성을 축원

▶ 1면에서  
습근평은 거리 풍경을 살펴보고 도시 간의 상황에 대한 소개를 청취했다. 그는 또 도향촌 제과점에 들어가 제과의 종류와 특색을 묘해하고 제과 현장 제작을 관람하며 가게 주인에게 북경의 전통 브랜드를 잘 전승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했다.

음력 작은설을 맞아 풍북청사 앞의 신축시장은 많은 시민과 유람객들을 끌어들였다. 습근평은 다양한 설맞이 용품 부스를 흥미진진하게 둘러보고 현장 군중들과 친절하게 교류했다. 그는 어린시절 풍북사를 여려번 방문했던 광경을 모두에게 기쁘게 이야기했으며 몇 가지 특색 식품과 문화창의제품을 구입했다.

거리에서 경서 태평과 공연이 흥겹게 펼쳐지고 있었다. 총서가 도착

하자 현장의 군중들은 열정적으로 환호하며 안부를 물었다.

습근평은 북경 시민들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은 북경의 ‘작은설’이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작은설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특별히 찾아왔다. 이곳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기쁨이 넘치며 설명절 분위기를 짙고 설맞이 용품이 충분한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 설날은 백성들에게 큰일이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민생 보장과 안전생산을 절실히 잘 틀어쥐어 광범한 인민대중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찰 기간 습근평은 북경시 당위와 정부의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제반 사업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충분

히 긍정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5.5’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북경은 당중앙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당중앙이 확정한 도시 전략적 위치를 띄워하며 경제, 사회 발전을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솔선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고 전국에서 시범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북경은 도시의 전략적 위치와 경진기 협동 발전에 립각하여 고품질 발전 방향을 일종 확고히 수립하고 증가와 감소, 보장과 압축을 병행하는

가운데서 경제의 질적인 효과적 향상과 양적인 합리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경진기 협동 발전을 추진하는 ‘핵심고리’인 북경 비수도 기능 분산을 틀어쥐고 중량 통제와 기존 향토 혼수를 결합, 병행해 분산과 발전의 유기적 통일과 상호 촉진을 실현해야 한다. 북경(경진기) 국제과학기술혁신중심을 확장하는 기회를 다잡아 천진, 하북과의 협력적 혁신과 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경진기 협동 발전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심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교育, 과학기술, 인재의 일체화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강화하며 신질생산력을 힘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현대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풍부한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하여 문화, 상업, 관광, 체육, 전시의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대도시가 대규모 교외지역을 견인하고 대규모 교외지역이 대도시에 봉사하는 것을 견지하며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계획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연동 발전, 융합 발전, 조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개혁을 기아족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여 전국에 복제 및 보급 가능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반드시 보다 높은 표준과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당의 정치 건설을 두드러지게 잘 틀어쥐고 강력한 정치적 능력을 단련해야 한다. 인재 선발, 등용의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각급 지도부에 배치해야 한

다. 학습 양성을 강화하고 간부대오의 현대화 건설 기량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과 간부들이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실천, 인민, 역사의 겸장을 겸밀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기풍을 바로잡고 규률을 엄숙히 하며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계속하여 심화시키고 부패할 엄두를 못 내고 부패할 방법이 없으며 부패할 생각이 없게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며 부패가 자라는 토양과 조건을 없애고 기풍이 청렴하고 옳바른 정치생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가 고찰에 수행했다.

하립봉 및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고찰에 수행했다.

리론에서 현장으로

연변대학, 지역과의 협력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

또한 학생들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산업 발전, 정책 집행,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은 마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응원을 전했다.

실천 활동중 석사과정 학생들은 ‘리론이 기초에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을 갖고 마을의 기본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촌 당원 간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당의 방침과 정책을 설명하고 국가의 발전 방향과 정책 혜택이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렸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새로운 시대의 발전 흐름 속에서 더 큰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 김영화기자

## 지난해 농촌 온라인 소매판매액 3 조원 돌파… 전자상거래 ‘한몫’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농촌 전자상거래 역시 빠른 발전세를 보였다. 2025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진행한 농촌 지원 방송은 년간 400만회 이상으로 조사됐다. 농특산물 판매량은 100억건을 돌파, 하루 평균 2,000만건 이상의 주문이 발생됐다.

농촌지역 물류 네트워크도 보완돼 지난해 현금 물류배송센터 348개, 향진 택배 물류 거점 562개가 건설됐다. 이로써 중국의 모든 현역이 100% 물류배송센터를 갖추게 됐다.

/ 신화사